

“다문화가족의 든든한 힘”

개소 1주년 맞은 ‘익산시 다문화이주민+센터’ 인기
1년간 15000명 내 · 외국인 방문... SNS 이벤트 실시

개소 1주년을 맞은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자 역할을 톡톡히 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익산역에 위치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교통의 편리성 때문에 1년여간 1만 5000여명의 내 · 외국인들이 방문했다. 또한 센터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밴드, 페이스북, 나날별 카카오톡 대화방 등 SNS를 활용해 코로나 19 관련된 다국어 안내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절차 변경 등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

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다문화이주민+센터는 익산시를 비롯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익산노동자의집,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5개 기관이 입주해 부처별·기관별로 각각 제공되던 서비스를 이용자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전국 22개의 센터 중 최우수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타 지자체로부터 많은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개관할 때부터 파견되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유나 주무관은 타 부처와의 협업 및 민원처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는 도내 최초로 다문화 전시체험시설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을 조성해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보고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다문화사회 형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익산시다문화이주민+센터는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SNS 팔로우 인증 이벤트를 실시하며 센터를 알리고 있다. 이벤트 참여 시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은 물론 손 소독을 의무화해 코로나19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베트남 결혼이민자는 “아직도 공공기관에 갈 때 두려움이 있지만 익산센터는 봉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모두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도움을 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다른 친구들도 익산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대학교는 22일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광장 등 야외에서 2020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하고 전북, 충남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및 진로탐색을 위한 맞춤형 입학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군산대, 맞춤형 진로박람회 성황

전공체험 · 진로탐색 기회 제공

군산대학교는 22일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광장 등 야외에서 2020년 진로박람회를 개최하고 전북, 충남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공체험 및 진로탐색을 위한 맞춤형 입학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박람회는 각 학과에 대한 정보와 전공 및 진로 체험을 통해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모집단위 및 변화하는 대입 전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해 각 학과별 1부스가 설치되었고, 전북, 충남 지역 고등학생, 교사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학생생활관, 국제교류교육원, 대학일자리센터, 창업지원단, 학생상담센터, 국립대학육성사업추진단, LINC+사업단 등 주요 부서 및 시설 사업단 등도 부스를 설치했다. 이들 부스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소개,

창업 프로그램, 대학 특장점 등 군산대학교가 구비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가 소개됐다.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진학지도를 위한 전형 자료도 공유하였다. 이외에 캠퍼스 투어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대학의 실체를 체험하고 캠퍼스 곳곳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번 진로박람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군산대학교 내 체육관 주차장, 아카데미홀 중앙홀로, 공과대학 3호관 주차장 공과대학 광장 등의 야외 체험 ZONE을 구성해 철저한 방역대책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진행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최현재 군산대학교 입학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올바른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미세먼지 줄이기’ ... 나무 나누어 드려요

익산시, 1인당 3그루 선착순

익산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3번째 진행되고 있으며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전개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오는 10월 16일 공동체 나무 나누어주기와 10월 30일 시민참여 나무 나누어주기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우선 시민참여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는 시민 누구나 한 사람에게 나무 3그루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사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수령 시간을 안내받은 후 다음달 30일에 나무를 수령 받으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이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준비된 수목이 소진되면 선착순 마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늘푸른공원과(0859-5886)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참여 나무

심재 사건을 늘푸른공원과 인스타그램(issandipark) 계계 시 추천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10월 16일에 진행되는 공동체 나무 나누어주기는 공동주택 및 읍면동 유관단체 등 공동체가 일상 생활 주변 자투리땅이나 유휴부지(최소 20㎡)에 수목을 식재하여 생활 속에 녹색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봄에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를 거쳐 105단체에 2만800부 분량을 확정했다. 분량을 통보 받은 단체는 다음달 16일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무를 수령 받으면 된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시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재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2일 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상권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는 취지에서 장보기 행사 및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시의원들은 역전시장을 방문해 어깨띠를 두르고 내고장 상품 홍보를 하며 시민들이 추석명절 장보기에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22일 군산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는 취지에서 장보기 행사를 벌였다.

군산 명산시장, 추석맞이 위킹스루 판매 행사

군산명산시장이 추석을 맞아 위킹스루 판매행사를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명산시장(상인회장 박태만)이 추석을 맞아 오는 28일 중국화교 소학교 앞에서 선착순 위킹스루 판매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당일에는 명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이한익)에서 직접 준비한 한가위 꾸러미(한우불고기(400g), 차례용 대추·밤(300g), 한과(200g), 식혜(500ml))를 10,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구매금액 중 일부(3,000원)는 명산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캐시백 쿠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매고객 전원에게 경품

응모권과 마스크를 지급하며, 경품추첨은 오는 28일 월요일 오후 5시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으로 비대면 추첨한다(명산시장 인스타그램 gunsan_myeongsan). 한우 불고기의 재료는 모두 명산시장 내에서 구매 가능한 한우와 각종 야채들로 구성돼 있으며, 양념이 버무려져 있어 집에서 구워먹기만 하면 되는 명산시장 표 간편식이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전북도와 군산시, 군산명산시장이 함께하며, 군산명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주관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민원콜센터' 소통행정 창구 역할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가 소통행정 1번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민원콜센터에 대한 올 상반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1%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민원처리 사후관리와 시민 의견수렴, 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매월 200명씩 연 9회 실시하고 있다. 민원콜센터 민원접수 건수는 올해 8월 말 기준 11만9,000건으로 환경보전 3만7,400건, 사회복지 2만4,200건, 건설교통 1만7,300건, 민생경제 1만600건 등 전년 대비 3만800건, 34.9%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문의가 1만5,000건으로 지역 발병 및 확진 환자 여부, 확진자 이동 경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문의가 주를 이뤘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민원콜센터는 10년 이상의 경험과 그동안 축적된 상담 데이터베이스 1,000여 건의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속한 민원상담을 실시해 왔으며 교통, 관광, 시정 소식, 전입 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장왕원 기자

익산 희망일자리 사업
패적인 환경조성 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일자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패적인 환경조성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시작된 희망일자리사업은 14개 동 지역, 300여명이 참여해 장바와 무더위 속에서도 판매 주요도로 환경정비, 불법쓰레기 수거활동 등을 실시하며 도시미관과 정주여건 개선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희망일자리사업은 당일 작업목표 구간을 정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익산=장왕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